



불가능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머리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요일 점심에 우리를 데리고 나가던 일이 기억난다. 언제나 같은 식당, 살라 벨라였다. 주인은 덩치가 큰 여자였고, 늘 웃었고, 늘 반겨주었다. 음식은 좋았다. 훌륭했다.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맛이였다.

아버지의 상사가 합석하는 일도 잦았다. 프리울리 태생으로 키가 거의 이 미터, 몸무게는 백이십 킬로그램을 훌쩍 넘었고, 왕성한 식욕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메시나에서 차를 몰고 내려왔다.

식사가 끝나면 계산서가 나왔다. 아버지는 계산하려고 의자에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지폐를 접어 냅킨 안에 넣어, 빈 접시 위에 놓아두었다.

두 사람이 계산을 나눠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다른 방식을 본 적도 없다. 그 문제로 오가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는 상사였다. 내 아버지는 영업사원이었다.

그리고 계산은 영업사원이 한다.

그러던 어느 저녁, 차고에 차를 넣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너는 늘 내가 내는 걸 본다. 늘 내가 먼저 돈을 꺼내는 걸 본다. 그래서 내가 계산서를 낸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한 달이 걸렸다.

어느 일요일, 같은 식당에서 상사가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아버지가 말하는 동안 받아적기 시작했다.

누가 새 가게를 열었는지. 누가 문을 닫았는지. 누가 대금 지급이 늦는지. 누구의 아들이 가업을 물려받았는지. 누가 아직도 경쟁사 제품을 진열장에 두고 있는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아이였고, 식당에서 아이는 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월요일 아침이면 그 기록들은 상사의 서명을 달고 밀라노로 갔다.

아버지는 저녁값을 냈다. 상사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냈다.

이십 년 동안 경고 한 번 없었다. 징계 기록 한 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당한 임금 인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는 질레트 이탈리아에서 전무와 영업이사 바로 다음으로, 세 번째로 보수가 높은 사람으로 꼽힐 만했다. 남들보다 많이 팔아서가 아니었다. 매일 고객들 앞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부가가치를, 다른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산서는 언제나 그 식당에 앉아 있지 않은 누군가가 낸다.

그 문장을 기억해 두시기 바란다. 끝에 가서 필요할 것이다.

제1부

왜 이렇게 긴 서두를 놓았는가?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언젠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라며 내가 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가까운 미래일지 훨씬 뒤일지는 나도 모른다.

팔월 중순의 일요일 오후였다. 타는 듯한 더위. 건조한 공기.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온도였다.

에어컨은 힘껏 돌아가고 있었고, 아내는 늘 그렇듯 그것을 끄라고 일렀다. 전기 요금은 소금을 더 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짜니까.

저녁 여섯 시 반쯤이었다. 붉은 안락의자에 길게 몸을 뻗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국가번호는 +1. 미국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 시각에 미국에서 내게 전화를 건단 말인가. 그쪽은 아직 점심시간일 텐데.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였다. 낮고, 약간 목이 잠긴 듯한.

“페르디난도 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접니다. 누구신지요?”

“로버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식 성을 가진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웃었다.

“전화 감사합니다만, 솔직히 이 장난을 꾸민 분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로마에 앉아서 미국 번호로 전화를 거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 개인 휴대전화입니다. 공식 경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관의 소통이 아니니까요. 아직 제게 허락된 몇 안 되는 특권 중 하나입니다. 의심스러우시면 바티칸 교환실 번호를 드릴 테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지요.”

나는 회의적이었다. 미심쩍었다.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끊고 싶지는 않았다. 무례함은 한 번도 내 천성이었던 적이 없다. 대신 내면의 위협 감지 장치를 최대한 올려놓고, 내가 정확히 어디에 발을 들였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말씀하십시오, 성하. 오늘 제가 무엇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해도 됩니다, 난도. 나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그렇군요. 우리가 먼 것은 역할뿐입니다. 당신은 가톨릭교회의 넘버 투이고, 저는 마지막 필경사입니다.”

“왜 넘버 투입니까? 나는 내가 넘버 원인 줄 알았는데요.”

“불편하게 들리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넘버 원은 이 모든 것을 세운 사람, 예수입니다. 질레트 시절 제 옛 동료지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유일한 분입니다. 최고경영자를 공개적으로 임명할 수 없었기에, 그는 교황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각자 방식으로 채울 자유를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알겠군요.” 그가 말했다. “왜 우리 집 복도마다 같은 질문이 울리는지 말입니다. 오늘 질레트내러티브 봤나? 그 동료가 이번엔 뭘 썼는지?”

그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좋은 영업사원은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을 알아본다. 그러나 그 역시 그것을 알아볼 만큼 영리했고, 즉시 호흡을 맞췄다.

“제가 미국 은행 계좌에 연결된 번호로 걸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얼마 전 그 은행에 직접 전화했더니 장난인 줄 알고 끊어 버리더군요.”

“예, 성하.”

“아닙니다, 난도. 부탁드립니다. 로버트라고 불러 주십시오. 적어도 사석에서는요. 의전 없이. 그편이 삶이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로버트, 은행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그 자리라면 그쪽이 당신을 찾아와야 합니다. 사실 바티칸 시국 안에 지점을 여는 일은 거의 의무로 여겨져야 합니다. 명성 하나만으로도 정당화됩니다. 진지한 은행가라면 논의할 엄두조차 내지 않을 기회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통화는 탐색입니다. 당신이 제게 보낸 편지와 똑같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둘 다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제2부

“난도, 당신이 당신의 질레트바티칸에 대해 쓴 이야기를 전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스물두 개 언어입니까? 스물두 개의 세계? 교회가 사실상 변두리인 곳에서까지. 인도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적용해 본 적 없는 시장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은 이미 당신에게서 사는 사람입니다. 소비자는 아직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고객을 셉니다. 세례받은 이들. 실천하는 신자들. 등록된 신도들.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잊습니다.

시장은 이미 강한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당신이 없고 아무도 당신의 도착을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얻는 것입니다.

스물두 개 언어는 스물두 개의 번역이 아닙니다. 스물두 개의 열린 문입니다.”

“잠깐만요. 신앙이 상품이고, 사람들이 치약 상표를 바꾸듯 종교를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불쾌하시다면, 지난 삼십 년간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당신들의 교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고, 누가 그들을 움직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숫자를 하나라도 드리기 전에 제대로 된 실사를 할 권리를 유보하겠습니다. 검증하지 않은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건 컨설턴트가 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컨설턴트는 어차피 청구서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신들의 마케팅은 —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마케팅을 하고 있고, 형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 이십 년 전에 낡았습니다. 이제 캠페인으로 추종자를 모으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업종에도.

통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는 그 몸짓이 되는 것.

그러니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말씀하시지요.”

“역사 속의 교황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역사를 만든 교황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비슷하게 들리는군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필로그

“그럼,” 그가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응해 주셔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저 이야기꾼으로 대하며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학자도, 작가도,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시스템 전략가로 대하며 말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제 생각을 공식적으로 알려 드릴 권리를 유보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난도. 이 모든 것. 스물두 개 언어. 실사. 면도날 갑 속의 낱장.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그리고 나는 문득 1975년의 차고로 돌아가 있었다. 사실은 자기가 내지 않는 저녁값을 방금 치른 한 남자의 곁에.

“로버트. 언제나 사람들이 냅니다.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것을 현금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매가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펼쳐지는 손은 같은 손입니다.

차이는 결코 누가 내느냐가 아닙니다. 차이는 그 돈 가운데 얼마가 쓸모 있는 것으로 돌아오고, 얼마가 갇힌 채 남아, 너무 적게 만들어 내면서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을 먹이느냐입니다.

아버지는 저녁값을 냈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어준 것이 그가 쓴 것보다 값졌으니까요.

이제 당신이 식탁의 어느 쪽에 앉아 있는지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제게 물으실 것이 있으니까?” 그가 말했다.

“예. 몸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곳을 눈여겨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위험은 안에서 옵니다. 그리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해체하려 할 때 바로 그 위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책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만듭니다.

Ferdinando